

## 루닛

### 빅파마 로슈진단에 루닛 스코프 공급 계약 발표

#### 로슈진단의 디지털병리 플랫폼 네비파이에 루닛 스코프를 통합하는 계약 체결

동사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진단사업부인 로슈진단(Roche Diagnostics)의 디지털병리 플랫폼인 네비파이(Navify)에 루닛의 AI 병리분석 솔루션 '루닛 스코프 PD-L1'을 탑재하는 협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0일 발표하였다.

이번 협업은 디지털병리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잡은 로슈가 해당 분야를 확장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자사의 디지털병리 플랫폼 네비파이에 8개의 새로운 협력업체와 20개 이상의 AI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AI 솔루션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은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유럽, 한국, 일본 등 중요 글로벌 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루닛은 네비파이에서 다루는 다양한 암종 중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솔루션인 루닛 스코프 PD-L1을 탑재하기로 했다. 루닛 스코프 PD-L1은 폐암세포 조직의 종양비율점수를 AI로 분석하여 암세포 표면 단백질 PD-L1의 발현을 정량화해 판독하는 솔루션이다. 네비파이를 비소세포폐암 분석에 사용하면 루닛에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 Analyst's Insight: 루닛 스코프의 공급망 확대 및 로슈와의 시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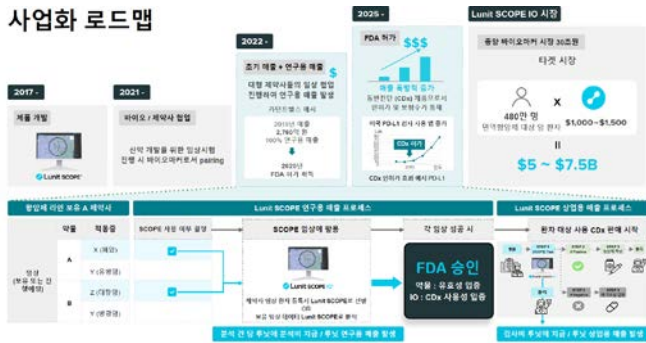
① 루닛 스코프의 공급망 확대: 루닛 스코프는 기존에 병리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디카랩스(Indica Labs)를 통해서만 유통되었다. 인디카랩스의 Halo라는 프로그램 안에 장착되어 자체 병리실을 보유한 대형병원에 유통되거나 가던트헬스와 같은 센트럴 랩을 통해 병리실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형 병원에 유통되는 방식이었다.

이번 계약으로 루닛 스코프는 로슈진단의 네비파이 플랫폼에 장착됨으로써 공급망이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병리실에서 루닛 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네비파이 플랫폼을 사용해 비소세포폐암의 PD-L1을 분석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로슈는 자체 디지털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전역에 영업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② 로슈 제품과의 시너지: 한편, 로슈는 지난해 3월 폐암치료제에 대해 동반진단용으로 PD-L1 테스트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다. 이는 면역조직화학(IHC) 검사 솔루션으로 실험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검사로, 루닛에서 제공하는 AI 분석 솔루션과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티슈넥스트 PD-L1 제품과 마찬가지로 기존 제품과 루닛 솔루션 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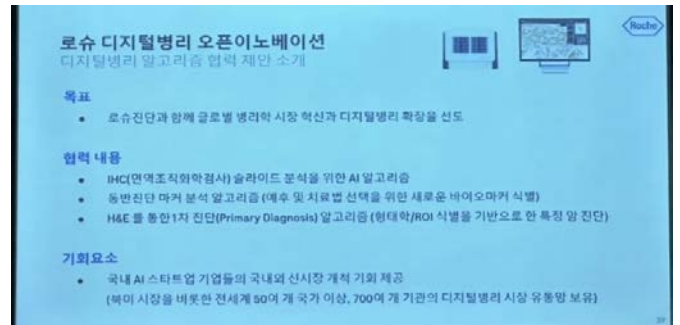
한동안 큰 뉴스가 없었던 루닛 스코프에 오랜만에 좋은 뉴스가 발생했다.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시장의 기대가 큰 빅파마와 동반진단 파트너십 기대감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루닛 스코프는 여전히 동사의 중요한 투자포인트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참고로 로슈는 국내에서 디지털병리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를 발굴 중이다(그림 2 참조).

그림 1. Lunit SCOPE의 사업화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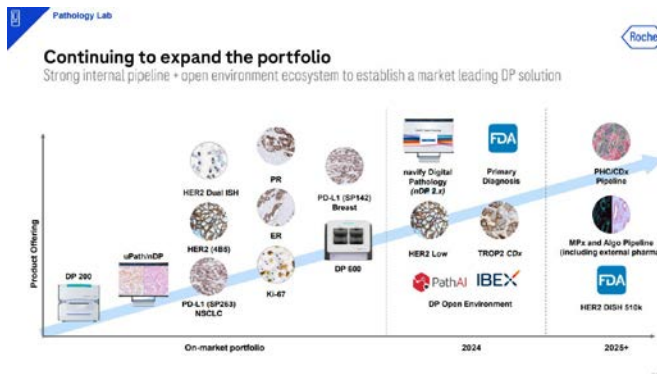
자료: 루닛,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국내에서 진행 중인 로슈의 디지털병리 오픈 이노베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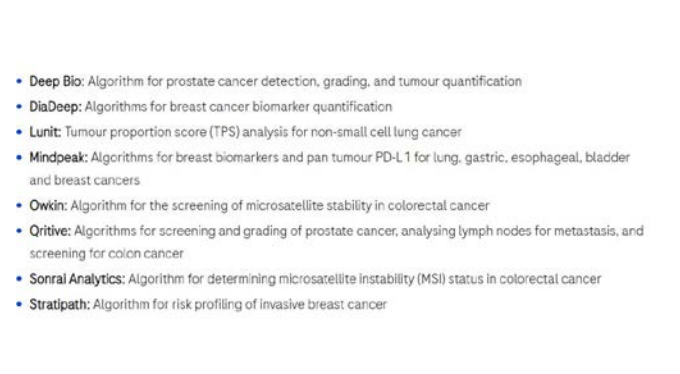
자료: KHID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로슈의 디지털병리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자료: Roch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로슈 Navify 플랫폼에 AI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한 8개사



자료: Roch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